

도시인들에게 전하는 마음
도심사진전

2015. 12. 21 - 12. 27

OPENING 12. 21 18:00 시민청 시민플라자 B2 (태평홀 옆)

도심都心 : 건담의 형상

도시는 발전했고, 사람도 도시의 속도에 적응했다. 덕분에 우리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, 여전히 이 거대한 도시의 틈 사이로 고독의 보풀들이 떠다닌다. 모두 괜찮다고 말하지만 정말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다.

나의 사진들은 무엇을 기다리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오늘을 묵묵히 건디는 도시의 마음, 그 건담의 형상들에 관한 짧은 기록이다.

인고의 끝에 반드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한다.

_작가 최지훈

도심都心 : 섬들의 초상

이 도시에 머무는 팔년 간, 나는 네 개의 방에서 살았다. 방을 옮겨갈 때마다 내가 아닌 것을 버리고, 나라고 믿는 것은 남겨두었다.

어디를 가도 타인들 속에 섞이는, 늘 풍경을 달리하는 이 도시의 거리에서 돌아와 문을 잠그면 비로소 혼자가 된다. 오롯이 홀로 있을 수 있는 곳, 안심하고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.

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이 도시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다.

_작가 이지민

세상은 어제를 떠올리기도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모하고, 우리는 내일의 평화를 그리며 묵묵히 오늘의 속도를 버텨낸다. 사진전 <도심都心>은 ‘이 시대의 발전과 평화’라는 주제 아래 도시의 외면과 내면을 두 젊은 작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전시이다.

변화한 도심 저변에 깔린 고독의 포즈와 저마다의 섬을 가진 청춘의 초상을 통해, 그림자처럼 들러붙은 고단한 삶의 정경들을 잠시나마 마주볼 수 있길 바란다.

_기획 송재원

공동주관



서울문화재단

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



**Charlotte
Peace Designer**

LOTTE
DEPARTMENT STORE

UN HABITAT
FOR A BETTER URBAN FUTURE

도시인들에게 전하는 마음
도심사진전

2015. 12. 21 - 12. 27 OPENING 12. 21 18:00 시민청 시민플라자 B2 (태평홀옆)

도심都心 : 건담의 형상

도시는 발전했고, 사람도 도시의 속도에 적응했다. 덕분에 우린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, 여전히 이 거대한 도시의 틈 사이로 고독의 보풀들이 떠다닌다. 모두 괜찮다고 말하지만 정말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다.

나의 사진들은 무엇을 기다리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오늘을 묵묵히 견디는 도시의 마음, 그 건담의 형상들에 관한 짧은 기록이다.

인고의 끝에 반드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한다.

_작가 최지훈

도심都心 : 섬들의 초상

이 도시에 머무는 팔년 간, 나는 네 개의 방에서 살았다. 방을 옮겨갈 때마다 내가 아닌 것을 버리고, 나라고 믿는 것은 남겨두었다.

어디를 가도 타인들 속에 섞이는, 늘 풍경을 달리하는 이 도시의 거리에서 돌아와 문을 잠그면 비로소 혼자가 된다. 오롯이 홀로 있을 수 있는 곳, 안심하고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.

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이 도시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다.

_작가 이지민

세상은 어제를 떠올리기도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모하고, 우리는 내일의 평화를 그리며 묵묵히 오늘의 속도를 버텨낸다. 사진전 <도심都心>은 ‘이 시대의 발전과 평화’라는 주제 아래 도시의 외면과 내면을 두 젊은 작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전시이다.

변화한 도심 저변에 깔린 고독의 포즈와 저마다의 섬을 가진 청춘의 초상을 통해, 그림자처럼 들러붙은 고단한 삶의 정경들을 잠시나마 마주볼 수 있길 바란다.

_기획 송재원

공동주관

 **서울문화재단**
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

 **Charlotte**
Peace Designer

LOTTE
DEPARTMENT STORE

UN HABITAT
FOR A BETTER URBAN FUTURE